

## 宗氣의 의미에 대한 考察

### - 기존 논의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

<sup>1</sup>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敎室 講師 · <sup>2</sup>韓醫學古典研究所 博士後研究員  
辛相元<sup>1, 2\*</sup>

## A Study on the Meaning of Zong Qi

### - A Reconsideration of Existing Discussion -

Shin Sang-won<sup>1, 2\*</sup>

<sup>1</sup>Lecturer in the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sup>2</sup>Post-doctoral Researcher at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Objectives** : To determine and analyze problems in existing discussions on Zong Qi and to establish a new concept of Zong Qi based on the initial idea that gave birth to this concept through examination of early texts.

**Methods** : Descriptions of Zong Qi in contemporary theoretical texts published in both Korea and China were thoroughly examined. Also, theories of major doctors that dealt with this concept were selectively examined, after which problems of existing discussions on Zong Qi were analyzed. Next, verses that mention contents related to Zong Qi in the 『Huangdineijing』 were studied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Results & Conclusions** : The findings determined that existing discussions could not explain the meaning of Zong Qi properly. Based on new discussions, Zong Qi can be understood as a concept of maintaining the constancy of life dynamic in the Later Heaven(後天) that is lead by Qi from food and drinks. Clinical observation of aforementioned life phenomenon maintained by Zong Qi and additional discussion on its concept is necessary.

**Key words** : Zong qi(宗氣), Great qi(大氣), Breathing(呼吸), Pulsation(脈動), Vital sign(활력징후)

\* Corresponding Author : Shin Sang-won.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el : +82-2-961-9183, E-mail : rulr@nate.com

Received(August 2, 2019), Revised(August 9, 2019), Accepted(August 9, 2019)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I. 序論

宗氣는 ‘宗’이라는 명칭에서 나타나듯 인체 생명 활동을 설명하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 위상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상 概論 수준에서부터 다루어지는 기초적인 개념으로, 元氣, 營衛氣 등과 함께 제시되어 한의학의 氣 개념을 이해하는 첫 단추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宗氣 개념에 대한 설명은 상세하지 않은 편이다. 宗氣 개념이 제출된 『內經』에도 관련된 설명이 많지 않으며 이후 의학사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된 사례가 많지 않아 학술적인 면에서도 그 개념을 명확히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 또 이러한 상황과 별개로, 현대 한의학 이론서의 일반적인 설명에서는 주로 宗氣의 기능적인 측면을 위주로 기술하고 있고 宗氣라는 개념이 제출된 배경이나 문제의식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아, 宗氣 개념이 제기된 초기 문제의식과 전반적인 인체 생명현상의 구조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내에서의 연구는 유관 개념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다루어진 것을 제외하면 宗氣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결과는 극소수<sup>1)</sup>이며, 현존하는 연구도 현재의 시점과 시간적 격차가 크다. 중국에서의 연구는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에는 이론적 측면에서의 논의보다는<sup>2)</sup> 宗氣의 기능적인 측면을 현대의학의 생리, 병리기전에 대응시키고 서양과학적 방법론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sup>3)</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宗氣 개념의 새 인식을 위한 轉機가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보다 발전적인 宗氣 논의가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 먼저 宗氣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기간의 宗氣 논의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宗氣 개념이 제출된 『內經』의 언급들을 중심으로 宗氣의 개념을 정립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논의 재검토의 대상으로는 우선 현대에 국내와 중국에서 출간된 數種의 한의학 이론서에 나타난 宗氣 설명 항목을 검토하였다. 또한 『內經』 이후 역대로 宗氣에 관하여 논의한 대표적인 醫家들의 학설을 위주로 검토하여 후대의 宗氣에 대한 논의 흐름을 개략적으로 확인하여 보았다. 이어서 『內經』에서 宗氣에 관련된 언급이 나타난 문장들을 여러 注家의 注釋 및 후대 醫家의 학설을 참고하여 차례로 분석하고 이를 고찰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던 宗氣 개념의 특성을 드러냄으로써 향후 宗氣의 개념이 임상적 관점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한의학 교육 과정 상 氣에 관한 이해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宗氣 개념의 보다 상세한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적인 측면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 II. 本論

### 1. 한의학 이론서의 宗氣 설명

宗氣에 대해 설명한 현대의 한의학 이론 서적들의 내용을 실제로 확인함으로써 현재 宗氣에 대한 한의학의 일반적 인식을 파악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宗氣 연구의 출발점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한국과 중국에서 출간된 수종의 기초 이론 서적류 및 교과서류에 나타난 宗氣에 대한 설명 중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문제점 등을 분석해 볼 것이다.

1) 차운근, 김정호, 윤중화. 元氣·宗氣·榮氣·衛氣에 對한 考察. 동국한의학연구소논문집. 1994. 3.

2) 王九龍은 其間의 宗氣 이론의 연구 과정을 조망하였는데, 宗氣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정체되거나 현대의학에 경도된 해석이 주를 이루어 中醫學 고유의 의미가 희석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王九龍. 宗氣理論的研究進程與思考.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07. 13(6). p.402. “纵观近30年来的中医学理论的研究与应用, 可以发现许多研究成果往往是停留在中医理论被验证的阶段, 而片面追求用现代医学的知识、模式、方法来解释、验证中医理论, 其结果不但是忽视了对中医理论自身规律的研究, 而且也淡化了中医理论对临床的指导作用.”).

3) 楊燕. 宗氣理論概述及現代研究進展. 世界科學技術—中醫學現代化. 2014. 16(11). p.2437. “首先表現在從宗氣論治的疾病種類不斷增加. 以宗氣理論指導治療的疾病主要集中在心肺系統疾病. ……其次, 以宗氣理論指導治療心肺疾病的臨

床試驗研究見諸報道. ……另外, 從現代醫學角度對宗氣的實質進行了探討, 目前有窠房結說、胸內壓說、三磷酸腺苷說、一氧化氮說、腸醇之氣說等多種論說.”

## 1) 中醫學 기초 이론서의 宗氣 설명

『中醫學基礎』에서는 宗氣를 胸中에 쌓인 氣라고 정의하고, 流走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기능을 크게 두 가지 면으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息道로 올라가 呼吸을 주관하는 것으로 언어, 성음, 호흡이 관련되며, 둘째는 心脈을 관통하여 심장 박동을 추동, 조절하는 것으로 氣血의 운행과 肢體의 寒溫, 활동 능력이 관련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기본적으로는 『內經』에 나타난 언급을 기능적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며 여타 서적들에서 공통적으로 이러한 틀을 취하고 있다. 특징적으로 宗氣가 氣街로 내려가는 流走에 대해 氣功에서의 呼吸 수련의 원리와 상통한다고 설명한 점을 주목해볼 수 있다<sup>4)</sup>.

『中醫藏象學』은 기본적으로 기능적 관점에서 宗氣를 살펴보고 있으며, 전체적인 설명의 틀거리는 『中醫學基礎』와 같다. 추가적으로 생성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肺가 흡입한 淸氣와 脾胃가 化生한 水穀 精氣가 결합하여 생성된 것'이라고 하였다<sup>5)</sup>. 한편, 心에 관련된 宗氣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서 심장박동의 '리듬의 일정함'을 유지하는 측면을 언급한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다<sup>6)</sup>.

『中醫基礎理論』의 宗氣 생성 과정에 대한 설명은 『中醫藏象學』과 내용이 같으나 肺가 흡입한 淸氣를 '自然界淸氣'로 명시하였다. 특징적으로, 宗氣가 三焦를 따라 膻下 丹田으로 하행하여 先天 元氣를 자양한다고 하여 先天과의 관련성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內經』에서 언급한 宗氣의 流走 중 氣街로 향하

는 하행 노선 및 그에 대한 注家들의 해석을 바탕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sup>7)</sup>.

참고로, 宗氣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中醫學 서적이나 국내 서적에서 '水穀의 精微와 呼吸을 통해 획득한 외부 공기가 결합하여 생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內經』 및 기타 문헌에서 이러한 설명의 연원이나 근거를 찾기 어렵다. 굳이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자면, 첫째로 『靈樞五味』에서 언급한 '大氣'를 '자연계의 공기'라고 해석했을 가능성이<sup>8)</sup>. 둘째로, 張介賓은 宗氣를 眞氣와 상통하는 개념으로 보았는데 眞氣는 코로 들이마신 天氣와 水穀이 합쳐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sup>9)</sup>, 宗氣에 대해서도 이러한 해석을 적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로, 中西匯通을 주장한 張錫純은 『靈樞五味』의 "出三入一"에 대한 설명에서 흡입한 氣 중의 4분의 1이 肺膜을 통과하여 胸中大氣, 즉 宗氣를 기른다고 설명하였는데<sup>10)</sup>, 이를 참조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든 간에 宗氣에 대한 주된 관점과 거리가 있는 독특한 관점인데, 추측컨대 宗氣가 呼吸을 주관하는 작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대 과학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 서양의학의 호흡생리의 관점이 스며든 것으로 보인다.

## 2) 국내 生理學 교과서의 宗氣 설명

1987년 발간된 『신관 장부생리학』에서는 기능적 관점에서 정의하였음을 표방<sup>11)</sup>하면서 서양의학의 인

4) 上海中醫學院. 中醫學基礎. 香港. 商務印書館. 1992. p.39. "宗氣是積於胸中之氣. 宗氣在胸中積聚之處, 稱為'氣海', 亦稱'膻中'. 宗氣並能從氣海上走息道(呼吸道), 下走氣街(膻下丹田部位). 1. 走息道以司呼吸: 凡言語, 聲音, 呼吸的強弱, 均與宗氣的強弱有矣. 宗氣還可使呼吸之氣下注氣街(丹田). '氣功'的調節呼吸, 就是運用這原理. 2. 貫通心脈, 推動和調節心臟的搏動: 凡氣血的運行, 肢體的寒溫和活動能力, 多與宗氣有矣."

5) 王琦 주편. 中醫藏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p.42. "由肺吸入的淸氣和脾胃所化生的水谷精氣結合而成. 宗氣通過心肺的作用而貫注於周身. 宗氣的功能主要表現在兩個方面: 一是上出于肺, 走息道以行呼吸, ..... 二是貫注於心脈, 助心以行氣血, ....."

6) 王琦 주편. 中醫藏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p.42. "故心臟搏動的強弱, 節律是否整齊, ..... 若宗氣不足, 可出現 ..... 心臟搏動無力或節律失常等症."

7) 孫廣仁 주편. 中醫基礎理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 p.43. "是指聚於胸中之氣. 由脾胃運化的水谷之精所化生的水谷之氣, 與肺吸入的自然界淸氣, 相互結合而成. .... 還可沿三焦向下運行於膻下丹田, 以資先天元氣, ....."

8) 그러나 『內經』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大氣를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적다.

9) 張介賓 저, 전국한의원과대학원전학교실 편. 현토주역 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17. p.138. "氣者, 人身之大氣, 名爲宗氣. 亦名爲眞氣. .... 刺節眞邪篇曰, 眞氣者, 所受於天, 與穀氣并而充身也."

10) 張錫純 저. 醫學衷中參書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2. p.106. "蓋謂吸入之氣, 雖與胸中不相通, 實能隔肺膜通過四分之一以養胸中大氣, 其餘三分吐出, 即換出臟腑中混濁之氣."

11) 김완희 저. 신관 장부생리학. 서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1987. p.282. "체중의 반응현상을 원리적으로 지적인 기능적 개념이거니 구성분석적이거나 구조적인

체 구조와의 비교를 통해 宗氣를 설명하였다. 宗氣에 관련된 인체 생리의 요소들을 4가지로 요약하였고<sup>12)</sup>, 각각에 대해 심장활동을 위한 영양분 섭취, 관상순환, 동방결절 또는 방실결절, 심방근, 심실근, 자율신경, 그 자율신경에 관계하고 있는 호르몬, 혈액내 탄산의 분압 등의 서양의학적 실체들을 제시하였다.

1984년 발간된 『동의생리학총론』에서는 宗氣와 그 유관 개념들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구성하여 조직화하려는 시도가 보여진다. 宗氣의 생성 과정에 대해 呼吸에 의해 얻은 大氣와 脾胃의 水穀 精氣가 합쳐져 肺에서 생성된다고 설명한 내용은 中醫學의 설명과 동일하다<sup>13)</sup>. 새로이 덧붙여, 上下의 氣海에 모두 宗氣가 머물게 된다고 하였으며, 下氣海의 宗氣는 丹田에蓄하여 腎精을 氣化시켜 先天의 氣를 작용케 하며, 이것이 上氣海에 작용을 가해 운행하지 않던 宗氣를 행하게 한다고 보았다. 이는 다소 독특한 張介賓의 학설<sup>14)</sup>을 토대로 上下 先後天 氣의 관계를 조직화하고자 한 것이나 일반적인 『內經』의 宗氣 설명과는 상이한 점이 있다.

또, 이 때 宗氣가 空中의 大氣와 肺에서 만나 기능화하게 된다고 하였다<sup>15)</sup>. 또한 이렇게 肺에서 기

능화된 宗氣는 營衛氣를 氣化시켜 ‘기능’을 부여하므로 宗氣의 盛衰에 따라 營衛氣의 기능이 좌우된다고 보았다<sup>16)</sup>. 그 밖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의 틀은 기존 中醫學 서적의 설명과 대동소이하며 여기에 張介賓의 관점을 일부 가미한 것을 알 수 있다.

1993년 발간된 『동의생리학』에서는 『동의생리학총론』의 서술을 상당 부분 전제하면서도 약간의 내용을 보충하였는데, 기존 설명과 보충된 설명의 맥락이 상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기존 설명에서는 宗氣를 “흡입의 天氣와 脾胃에서 얻어진 水穀의 精氣가 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보충된 부분에서는 “곡식이 胃로 들어가서 胃의 위에서 出하는 大氣”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미 胃에서 出하여 膈中에 쌓였다가 상부로 퍼진 宗氣가 다시 胃之大絡인 虛里로 되돌아간다고 설명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sup>17)</sup>.

2008년 발간된 『개정판 동의생리학』에서는 宗氣의 생성 과정에 대한 설명에서 기존의 ‘自然界 清氣’, 또는 ‘공중의 大氣’와 같은 표현을 대체하여 水穀之氣와 결합하는 것이 ‘산소’라고 명시하였으며, 宗氣의 ‘활성화’라고 표현하여 자연과학 용어를 차용하여 설명하였다. 활성화된 宗氣는 다시 胸中 氣海에 모인다고 하였고<sup>18)</sup>, 이것이 營衛의 통로를 따라 脈內, 脈外의 두 갈래로 퍼진다고 설명하였다<sup>19)</sup>.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內經』의 설명과 다른 부

개념은 아닌 것이다.”

- 12) 김완희 저. 신관 장부생리학. 서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1987. p.275. “1) 入胃한 음식물의 처리 과정에서 관찰되는 기능계의 반응, 2) 심장박동과 그 박동을 가능하도록 관계하는 인자들, 3) 순환계를 비롯한 내장기에 관계하는 신경활동, 특히 자율신경의 활동, 4) 호흡기의 활동에 수반하여 관찰되는 기체의 배설”
- 13) 김완희, 김광중 공저. 동의생리학총론. 대한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1984. pp.187. “宗氣는 呼吸의 大氣와 脾胃에서 얻어진 水穀의 精氣가 합해서 이루어지며 肺에서 형성되어 肺中에 머무르므로 인체의 氣의 운동과 분포의 출발점이 된다.”
- 14) 張介賓은 “宗氣, 大氣也. 大氣者, 留止於上下之氣海”라 하여 宗氣가 上氣海(膈中)와 下氣海(丹田)에 각각 머문다고 설명했는데, 『內經』에서는 下氣海에 宗氣가 머문다고 보는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
- 15) 김완희, 김광중 공저. 동의생리학총론. 대한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1984. p.186. “이 宗氣는 胃上口에서 흡수되어 脾의 傳化작용에 의해 肺로 간 다음 上, 下의 氣海에 留止하게 된다. 이 때 上氣海의 宗氣는 胸中에 積하여 不行한다. 한편, 下氣海의 宗氣는 丹田에 蓄하여 先天의 氣를 작용케 하여 上氣海인 胸中에 작용을 가함으로써 搏하게 된다. …… 이 때 空中의 大氣와 肺에서 만나 기능화하게 된다.”

- 16) 김완희, 김광중 공저. 동의생리학총론. 대한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1984. pp.187. “그리고 呼吸을 통해 얻어진 宗氣는 肺에서 衛氣와 營氣를 氣化시켜 기능을 부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宗氣가 盛하면 營氣와 衛氣가 和하게 되고 宗氣가 衰하면 營氣와 衛氣의 기능이 약하게 된다.”
- 17) 대한동의생리학회 편. 동의생리학.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3. p.87. “宗氣는 곡식이 胃로 들어가서 胃의 위에서 出하는 大氣로서, 일부는 膈中에 쌓였다가 상으로 퍼지고, 일부는 하행한다. 上으로 퍼진 氣는 胃의 大絡인 虛里로 가서 心臟의 搏動을 일으키고 ……”
- 18)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수 편저. 개정판 동의생리학. 서울. 집문당. 2008. p.141. “穀氣(수곡의 정미지기) 즉 營衛의 氣가 脾에서 산소와 결합하여 활성화된 것으로 動氣 또는 大氣라고도 한다. 활성화된 宗氣는 胸中의 氣海(膈中)에 모여서 營衛의 통로를 따라 전신으로 운행된다.”
- 19)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수 편저. 개정판 동의생리학. 서울. 집문당. 2008. p.141. “宗氣는 氣海에서 발원하여 두 갈래로 나뉘어 운행된다. 즉 營衛의 통로를 따라 脈內와 脈外로 운행한다.”

분<sup>20)</sup>이 있으며, 혹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임의로 구성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

2019년 발간된 『생리학』에서는 宗氣의 생성 과정에 대한 설명에서 宗氣의 질적인 조건을 水穀 중 ‘가장 먼저 흡수된 영양물질’이라고 정의하였다<sup>21)</sup>. 아마도 宗氣의 특별한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水穀之氣 가운데 질적인 차이를 두어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판 동의생리학』과 마찬가지로 운행에 있어서 脈內를 순환하는 경로와 脈外를 순환하는 경로를 모두 따른다고 했는데<sup>22)</sup>, 사실상 營衛氣의 흐름과 동일하게 본 것이다.

## 2. 초기 문헌의 宗氣 언급

### 1) 『內經』의 宗氣 언급

五穀入於胃也，其糟粕津液宗氣，分爲三隧，故宗氣積於胸中，出於喉嚨，以貫心脈，而行呼吸焉。營氣者，泌其津液，注之於脈，化以爲血，以榮四末，內注五藏六府，以應刻數焉。衛氣者，出其悍氣之慄疾，而先行於四末分肉皮膚之間，而不休者也，晝日行於陽，夜行於陰，常從足少陰之分間，行於五藏六府。(『靈樞邪客』)<sup>23)</sup>

『靈樞邪客』에서는 宗氣, 營氣, 衛氣의 생성 과정과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水穀의 소화 과정을 먼저 언급하였는데, 水穀이 胃에 들어온 후 糟粕, 津液,

宗氣의 세 가지 경로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宗氣를 糟粕, 津液과 동등하게 언급한 것은 宗氣 생성 과정이 水穀으로부터 津液을 찌고 糟粕이 아래로 傳送되는 과정과 큰 틀에서 관련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宗氣는 胸中에 쌓이는 과정을 거쳐 喉嚨으로 나왔다가 心脈을 관통하여 呼吸을 행한다고 하였는데, 呼吸에 의해 宗氣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宗氣가 呼吸을 맡는다는 것이다. 喉嚨은 『靈樞憂患無言』에서 ‘氣가 오르내리는 곳’이라고 하여<sup>24)</sup> 呼吸과 관련이 있는 곳인데, 宗氣가 이 곳으로 나왔다가 다시 心脈을 관통하는 것은 呼吸이 心脈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루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宗氣의 흐름이 呼吸과 脈行의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馬蒔는 여기에 대해 呼吸과 脈行의 관계를 설정한 『靈樞五十營』과 『難經』 1難의 문장을 인용하여 이러한 관련성을 제시하였다<sup>25)</sup>.

用鍼之類，在於調氣，氣積於胃，以通營衛，各行其道，宗氣留於海，其下者，注於氣街，其上者，走於息道。故厥在於足，宗氣不下，脈中之血，凝而留止，弗之火調，弗能取之。用鍼者，必先察其經絡之實虛，切而循之，按而彈之，視其應動者，乃後取之而下之。六經調者，謂之不病，雖病，謂之自己也。(『靈樞刺節眞邪』)<sup>26)</sup>

『靈樞刺節眞邪』에서는 宗氣가 上下로 운행하는 流走를 설명하였으며, 이어서 宗氣가 下行하지 못하는 경우와 그 치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우선 宗氣가 ‘海’에 머무른다고 하였는데 이는 膻中의 氣海를 지칭하는 것으로, 『靈樞邪客』에서 말한 ‘積於胸中’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sup>27)</sup>. 이에 앞서 “氣積於胃，

20) 『靈樞刺節眞邪』에서 氣海에 머물다가 上으로 流走하여 呼吸을 행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미 호흡을 행한 후의 宗氣가 다시 모였다가 퍼진다고 하여 『內經』의 본래 설명과 다르다. 또, 『內經』에서 宗氣와 營衛氣의 관련성을 인정했다고는 볼 수 있으나 직접적인 推動 관계는 말하지 않았으며 注家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어, 宗氣가 脈內外를 모두 운행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21) 박선영, 김호현, 생리학. 서울. 집문당. 2019. p.136. “宗氣는 섭취한 음식(水穀)이 胃에서 소화된 후 가장 먼저 胃의 上焦에서 흡수되는 영양물질(精微, 精氣)로 脾를 거쳐 肺로 보내진 후 胸中에 축적된 氣이다.”

22) 박선영, 김호현, 생리학. 서울. 집문당. 2019. p.136. “宗氣는 氣海에서 출발하여 脈의 內外를 모두 순환한다. 가. 脈內를 순환하는 경로는 …… 나. 脈外를 순환하는 상행 경로는 …… 또 脈外로 운행되는 宗氣는 피부의 腠理가 있는 부위까지 순환한다.”

2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98.

2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95. “喉嚨者，氣之所以上下者也.”

25) 馬元臺, 張隱庵 譯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台北. 台灣國風出版社. 1981. p.399. “一呼吸行三寸，一吸脈行三寸，呼吸總爲一息則脈行六寸.”

2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316.

2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74. “膻中者，爲氣之海”，“氣海有餘者，氣滿胸

以通營衛”를 언급했는데, 문맥상 營衛氣와 더불어 宗氣도 胃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上下의 流走에서 上行하여 息道로 가는 경로는 역시 『靈樞邪客』과 동일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下行하는 경로는 氣街로 흘러간다고 하였는데, 氣街는 氣衝穴로서 『素問氣府論』에서 足陽明胃經의 脈氣가 나타나는 ‘動脈’으로 언급되는데<sup>28)</sup>, 脈의 搏動이 나타나는 부위로서 宗氣와의 관련성을 거론할 수 있다.

宗氣가 下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脈中の 血이 응결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經絡의 虛實을 관찰해 ‘應動’을 보고 刺鍼하여 宗氣가 내려가도록 한다고 하였다. 이를 볼 때, 宗氣는 본래 脈中으로 행하여 血을 動하게 하는 것이며, 脈動에 응함을 살펴 치료하는 것을 볼 때 역시 脈動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有所結，中於肉，宗氣歸之，邪留而不去，有熱則化而爲膿，無熱則爲肉疽。凡此數氣者，其發無常處，而有常名也。(『靈樞刺節真邪』)<sup>29)</sup>

한편, 같은 편에서 膿이나 肉疽가 발생하는 기전을 설명하면서 宗氣가 언급되었다. 氣가 맺힌 부분이 肉에 있는 경우, 그 부분에 宗氣가 모이게 되고 邪氣도 머물러 떠나지 않게 되는데 熱의 有無에 따라 膿이 되거나 肉疽가 된다고 하였다. ‘歸’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서 가야할 자리로 가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결체된 부분으로 인하여 宗氣의 흐름이 막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宗氣의 흐름이 멈추면 자연히 宗氣가 추동하는 氣血의 흐름이 정체됨에 따라 膿이나 肉疽가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黃帝曰，營衛之行奈何。伯高曰，穀始入於胃，其精微者，先出於胃，之兩焦，以溉五藏，別出兩行，營衛之道。其大氣之搏<sup>30)</sup>而不行者，積於胸中，命曰

氣海，出於肺，循喉咽，故呼則出，吸則入。天地之精氣，其大數常出三入一，故穀不入半日則氣衰，一日則氣少矣。(『靈樞五味』)<sup>31)</sup>

『靈樞五味』에서 언급된 大氣는 『內經』의 여러 편에서 등장하는 개념인데, 『素問五運行大論』에서 宇宙 차원의 大氣를 말한 것<sup>32)</sup>이 가장 포괄적인 의미의 언급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大氣가 太虛를 채우고 있어 땅을 들어 올리며 궁극적으로는 六氣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설명되는데, 宇宙變化를 推動하는 근본적인 氣로 본 것이다. 이러한 大氣의 위상을 하나의 宇宙인 인체에 그대로 옮겨왔을 때 인체에서도 이와 같은 氣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역시 大氣라고 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문장에서는 大氣 앞에 ‘其’를 붙였는데 水穀으로부터 化生하여 인체 생명을 영위하는 氣의 大體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大氣 가운데에 묻쳐서 운행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였는데, 인체 大氣 중에서도 특정한 존재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33)</sup>. 그런데 이것이 胸中の 氣海에 쌓여 肺로 나와 咽喉를 따라 呼吸에 관여한다고 하여 다른 편에서 설명되는 宗氣의 특성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張介賓은 이러한 의미에서 여기에서 말한 大氣도 宗氣로 의미를 한정지었으며, 인체의 大氣를 宗氣라고 이른다고 하였다<sup>34)</sup>.

30) 搏：『精校黃帝內經靈樞』에는 ‘搏’으로 되어 있으나 『靈樞經校釋』에는 ‘搏’으로 되어 있다(河北中醫院 校釋，靈樞經校釋，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5，p.135.). 『甲乙經』，『太素』에는 ‘搏’으로 되어 있다. ‘搏’과 ‘搏’은 모두 모여서 뭉치는 의미가 있으니 뜻이 통한다고 할 수 있다.

31) 洪元植，精校黃帝內經靈樞，서울，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1985，p.246.

32) 洪元植，精校黃帝內經素問，서울，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1985，p.237. “帝曰，地之爲下否乎。岐伯曰，地爲人之下，太虛之中者也。帝曰，馮乎。岐伯曰，大氣舉之也。燥以乾之，暑以蒸之，風以動之，濕以潤之，寒以堅之，火以溫之。”

33) 이외에도 『內經』에서는 大氣를 외부에서 感受한 邪氣로 지칭한 경우가 있는데, 邪氣 역시 大氣가 작용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보아 크게 大氣로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34) 張介賓 著，全國한과대학원전학교실 편，현도주역 類經，서울，법민문화사，2017，p.138. “氣者，人身之大氣，名爲宗氣.”

中”

28) 洪元植，精校黃帝內經素問，서울，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1985，p.206. “足陽明脈氣所發者，……氣街動脈各一，……”

29) 洪元植，精校黃帝內經靈樞，서울，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1985，p.317.

宗氣 설명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앞에서는 水穀의 精微가 營衛氣를 化生하여 運行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였고, 이어서는 呼吸에 따라 자연히 氣가 소모되는 ‘出入一’의 이치가 존재함을 설명하며 水穀을 통한 지속적인 氣 보충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즉, 水穀之氣가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인체의 氣를 化生함으로써 呼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거꾸로 呼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水穀之氣가 안정적으로 보충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 중간에 언급된 宗氣는 水穀之氣와 呼吸의 관련성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胃之大絡，名曰虛里，貫鬲絡肺，出於左乳下，其動應衣，脈宗氣也。盛喘數絕者，則病在中，結而橫，有積矣，絕不至曰死。乳之下其動應衣，宗氣泄也。(『素問·平人氣象論』)<sup>35)</sup>

『素問·平人氣象論』에서는 宗氣에 의해 左乳下에서 動氣가 나타나는 현상을 기술하였다. 虛里는 胃의 大絡으로 胃의 水穀之氣가 나오는 곳이며 膈膜을 뚫고 肺에 絡하므로 이 水穀之氣가 肺의 작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虛里에서 宗氣가 搏動으로 외현되는 것은 宗氣가 胃의 水穀之氣에 근원한다는 것과 肺의 呼吸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sup>36)</sup>. 이는 『靈樞·五味』에서 “出於肺”라고 한 것과 의미가 통한다.

“脈宗氣”라고 한 것에 대해 注家들은 대체로 ‘脈之宗氣’의 의미로 보았는데<sup>37)</sup> 宗氣 가운데에서 특히 脈을 행하여 脈動을 발현시키는 宗氣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素問·平人氣象論』의 위 문장의 바로 앞에서는 ‘平人之常氣’로서의 胃氣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四時에 따른 정상적인 五臟脈과 胃氣가 없는 死脈, 즉 眞藏脈을 설명하고 있다<sup>38)</sup>. 이러한 문맥을 따라 추론해보면 虛里에 대한 위 문장의 설명은 단순히 胃之大絡인 虛里에서의 宗氣의 외현 양상에 대한 설명을 넘어, 宗氣가 胃氣에서 비롯된 ‘平人之常氣’의 한 요소로서 平인의 정상적인 脈을 이루는 데에 필수적임을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虛里에서 나타나는 搏動의 이상에 대해서도 네 가지 경우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盛喘數絕者”는 中脘, 혹은 中氣의 病證을 말하는 것으로 보았고<sup>39)</sup>, “結而橫”은 有形的 積聚가 형성된 것으로 보았으며, “絕不至”는 搏動이 끊어져서 이르지 않는 상태로서 胃之大絡인 虛里의 胃氣가 끊어져 宗氣도 없는 상태로 眞藏脈이 나타나는 死脈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乳之下其動應衣”는 옷 위로 드러날 정도로 搏動이 심한 것으로 宗氣가 漏泄된다고 보았는데 虛損의 상황으로 볼 수 있다<sup>40)</sup>. 주로 胃氣의 문제를 중심으로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볼 때 胃가 원활하게 水穀을 소화시키는 것이 宗氣의 성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十二經脈，三百六十五絡，其血氣皆上於面而走空竅，其精陽氣上走於目而爲睛，其別氣走於耳而爲聽，其宗氣上出於鼻而爲臭，其濁氣出於胃，走唇舌而爲味，其氣之津液，皆上燠於面，而皮又厚，其肉堅，故天氣甚寒，不能勝之也。(『靈樞·邪氣藏府病形』)<sup>41)</sup>

3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65.

36) 백유상, 김중현. 『素問·效論』의 ‘聚於胃，關於肺’條문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회전학회지. 2017. 30(3). “虛리가 胃의 大絡임이 의미하는 것은 宗氣가 胃에서 생성된 氣에 근원한다는 것이며, 또한 虛리의 流走가 膈을 관통하고 肺에 絡하여 있어서 肺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7) 張介賓은 “是爲十二經脈之宗，故曰脈宗氣也.”，章楠은 “爲脈之宗氣.”，黃元御는 “諸脈之宗氣也.”，高世栻은 “是經脈之宗氣也.”라고 하였으며, 『針灸甲乙經』에는 “脈之宗氣”로 되어 있다.

3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65. “平人之常氣稟於胃，胃者平人之常氣也，人無胃氣曰逆，逆者死。春胃微弦曰平，弦多胃少曰肝病，但弦無胃曰死，胃而有毛曰秋病，毛甚曰病。藏眞散於肝，肝藏筋膜之氣也。……”

39) 章楠은 “其脈盛喘數絕者，滑動急促之象，病在中脘阻逆”이라 하였으며 張介賓은 “由中氣不守而然，故曰病在中.”이라고 하여 각각 中脘과 中氣를 언급하였다.

40) 章楠은 “若動甚震衣者，其宗氣大洩，乃內傷虛勞之病也.”이라 하였으며 張介賓은 “是宗氣不固而大泄於外，中虛之候也.”라고 하였다. 張介賓은 덧붙여 “凡患陰虛勞怯，則心下多有跳動，及爲驚悸慌張者，是卽此證，人止知其心跳而不知爲虛里之動也.”라고 하여 陰虛와 宗氣의 관련성 하에서 논하기도 하였다.

4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靈樞·邪氣藏府病形』에서는 날씨가 추위도 얼굴을 옷으로 가리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속에 宗氣가 나타난다. 모든 經絡의 血氣가 얼굴로 올라가 空竅로 달려가는데 精陽氣, 別氣, 宗氣, 濁氣, 津液 등을 말하였다. 이러한 血氣의 類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胃의 水穀이므로 여기에서도 宗氣가 水穀에서 나오는 血氣의 類임을 알 수 있다. 宗氣는 코로 나와서 냄새가 되는데, 이에 대해 注家들은 宗氣가 呼吸을 행하기 때문에 코로 나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sup>42)</sup>.

## 2) 『黃帝內經太素』의 宗氣

『太素』에는 『內經』에 나타난 宗氣 설명이 대부분 그대로 실려있으나 일부 내용이 다르며 楊上善의 注釋에도 독특한 관점이 담겨 있어 살펴보기로 한다.

黃帝曰, 宗氣之道, 內穀爲實.

【人之生也, 以氣爲宗. 宗氣之道, 無貴內穀. 內穀即腸胃□□也, 腸胃宗氣, 生身最重, 故名實也.】(『太素·營衛氣·營衛氣別』)<sup>43)</sup>

이 문장의 宗氣는 『靈樞·營氣』에는 ‘營氣’로 되어 있는데, 宗氣, 營氣 모두 水穀之氣에 의해 化生되므로 양 쪽 모두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 있다. 楊上善은 ‘腸胃宗氣’라는 표현을 썼는데 水穀이 납입되는 腸胃에도 宗氣의 작용이 관련되어 있음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宗氣留於海, 其下者, 注於氣街.

【肺之宗氣留積氣海, 謂腎間動氣也. 動氣下者, 注經氣街, 足陽明脈之氣也.】(『太素·九鍼五邪刺』)<sup>44)</sup>

楊上善은 注釋에서 胸中 氣海에 쌓이는 宗氣를

곧 腎間動氣라고 부른다고 하였고, 이것이 내려가서 氣街에 흘러들어간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腎間動氣를 宗氣와 같은 성질의 氣로 보았거나, 적어도 水穀之氣에서 기인한 宗氣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본 것인데<sup>45)</sup>, 어느 경우든 宗氣와 腎間動氣를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인식한 것이다.

腎間動氣는 『難經』에서 先天의 原氣로 설명되며, 宗氣와 마찬가지로 呼吸과 脈動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宗氣를 腎間動氣와 밀접한 관계로 본 것은, 宗氣가 기본적으로 水穀之氣로부터 化生되는 後天의 氣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先天之氣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본 것이다.

## 3) 『傷寒論平脈法』의 宗氣

趺陽脈浮而芤, 浮者衛氣衰, 芤者榮氣傷, 其身體瘦, 肌肉甲錯. 浮芤相搏, 宗氣衰微, 四屬斷絕. (『傷寒論平脈法』)<sup>46)</sup>

『傷寒論平脈法』에는 宗氣에 관련된 언급이 두 차례 나타난다. 그 중 첫 조문에서는 趺陽脈에서 浮而芤의 脈이 나타날 때의 병증을 기술하였는데, 이 경우 衛氣가 쇠하고 營氣가 상한 것으로 두 가지 요인이 결합하여 宗氣가 衰微하여 四屬이 끊어진다고 하였다.

成無己는 여기에 대한 주석에서 宗氣를 “三焦歸氣”라고 하였는데 宗氣가 三焦로부터 氣化된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營衛가 쇠하고 상하면 宗氣도 미약해진다고 설명했는데 공통적으로 胃에 근원을 둔다는 점에서 營衛와 宗氣의 성쇠가 궤를 같이함을 알 수 있다. 또, 宗氣가 衰微하여 四屬의 형체가 滋養받지 못하고 단절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는데, 營衛氣의 부족으로 인한 滋養의 문제를 넘어 氣行이 완전히 끊어지는 결과가 나타남을 설명한 것이다<sup>47)</sup>.

1985. p.37.

42) 張介賓은 “宗氣積於胸中, 上通於鼻而行呼吸, 所以能鼻.”라 하였고 張志聰도 “上出於肺, 以司呼吸, 故出於鼻而爲鼻.”라 하였다.

43) 錢超塵, 李雲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232.

44) 錢超塵, 李雲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459.

45) 백유상. 『黃帝內經太素』에 나타난 腎間動氣說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3). p.109. “만약 이러한 경로가 腎間動氣가 만들어져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면 腎間動氣의 유래는 水穀之氣 혹은 宗氣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46) 張仲景 原著, 成無己 注. 注解傷寒論.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29.

47) 張仲景 原著, 成無己 注. 注解傷寒論. 北京. 學苑出版社.

이 조문에서는 胃氣의 성쇠를 주로 파악하는 趺陽脈을 관찰하여 胃에서 化生하는 營衛氣의 상태를 진단하였고 이에 따라 宗氣 역시 衰微한 상태로 본 것으로 보인다. 병증의 진행 과정에서 營衛氣 손상이 합쳐지고 누적되면서 宗氣가 衰微해진다고 한 것은 『內經』의 여러 문장에서 宗氣가 누적, 머무름의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고 한 것<sup>48)</sup>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少陰脈不至, 腎氣微, 少精血, 奔氣促迫, 上入胸膈, 宗氣反聚, 血結心下, 陽氣退下, 熱歸陰股, 與陰相動, 令身不仁, 此爲尸厥, 當刺期門, 巨闕. (『傷寒論平脈法』)<sup>49)</sup>

宗氣가 언급된 두 번째 조문에서는 尸厥의 병리를 설명하면서 宗氣를 언급하였다. 少陰脈은 腎脈으로서 脈이 이르지 않는 것은 腎氣 및 精血의 미약함을 드러내는데, 이 상황에서 宗氣가 도리어 결취하고 이에 血結이 발생하여 身體 不仁의 증후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成無己는 厥氣가 胸膈으로 逆上하여 胸膈을 막아 宗氣가 결취해 운행하지 못하게 되어 呼吸 단절 증상이 발생하며 心下에 血結이 발생하여 四體의 不仁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는데<sup>50)</sup>, 『靈樞刺節真邪』에서 宗氣不下하여 血凝이 발생하는 것을 설명한 것과 매우 유사한 병리기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巨闕穴을 사용한 治法에 대해 胸中의 宗氣를 행하게 하여 血氣가 통하게 한다고 설명하였다<sup>51)</sup>.

전체적으로는 少陰脈의 관찰을 통해 나타나는 腎氣 및 精血의 문제도 宗氣의 운행에 악영향을 유발하는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 4) 『金匱要略』 百合病의 ‘百脈一宗’

論曰, 百合病者, 百脈一宗, 悉致其病也. 意欲食復不能食, 常默默, 欲臥不能臥, 欲行不能行, 欲飲食或有美時, 或有不用, 聞食臭時, 如寒無寒, 如熱無熱, 口苦小便赤諸藥不能治, 得藥則劇吐利, 如有神靈者, 身形如和, 其脈微數. (『金匱要略·百合狐惑陰陽毒病證治第三』)<sup>52)</sup>

『金匱要略』에서는 직접적으로 宗氣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百合病에 대한 설명은 宗氣의 개념을 바탕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百合病에 대한 설명에서 百脈이 하나를 宗主로 삼아서 百脈에 함께 병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말한 ‘百脈一宗’이 宗氣의 존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인체의 百脈은 공통된 질서를 가지고 돌아가는데 이것을 ‘百脈一宗’이라고 한 것이며 그러한 질서를 부여하는 氣를 宗氣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清代의 의학자인 高學山은 ‘一宗’이 온몸의 宗氣를 말하며, 宗氣는 胸中에서 心肺가 끼고있는 공간의 氣를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sup>53)</sup>. 또 百合病은 宗氣가 흩어져 나타나는 병이라고 하였다<sup>54)</sup><sup>55)</sup>.

### 3. 후대의 宗氣에 대한 언급

#### 1) 孫一奎의 宗氣 설명

孫一奎는 宗氣가 氣의 宗主라는 의미라고 하였으

2009. p.29. “宗氣者, 三焦歸氣也. 四屬者, 皮肉脂髓也. 榮衛衰傷則宗氣亦微, 四屬失所滋養, 致斷絕矣.”

48) 『內經』의 宗氣 설명에서 “積於胸中”, “宗氣留於海”, “搏而不行”라고 한 것들이 공통적으로 宗氣의 생성과정에서의 누적, 머무름의 과정을 나타낸다.

49) 張仲景 原著, 成無己 注. 注解傷寒論.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30.

50) 張仲景 原著, 成無己 注. 注解傷寒論.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30. “少陰脈不出, 則厥氣客於腎, 而腎氣微, 少精血, 厥氣上奔, 填塞胸膈, 壅遏正氣, 使宗氣反聚, 而血結心下. …… 今厥氣大甚, 宗氣反聚而不行, 則絕其呼吸, 血結心下而不流, 則四體不仁.”

51) 張仲景 原著, 成無己 注. 注解傷寒論. 北京. 學苑出版社. 2009. p.30. “刺巨闕者, 以行胸中宗氣, 血氣流通.”

52) 日本東洋醫學會 편집. 善本翻刻 傷寒論金匱要略. 東京. 日本東洋醫學會. 2009. p.257.

53) 高學山. 高注金匱要略. 諸子百家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9 1 August]; Available from: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798129> “一宗者, 一身之宗氣, 就心肺之夾空而言.”

54) 高學山. 高注金匱要略. 諸子百家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9 1 August]; Available from: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798129> “百合病爲宗氣渙散之症.”

55) 이외에도 高學山은 『金匱要略』의 다양한 병증을 설명하는데 宗氣 개념을 폭넓게 활용하였으므로 그의 宗氣에 대한 관점을 참고할만하다.

며, 혼돈하여 그 경계[端倪]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sup>56)</sup>. 이것은 이 氣가 하나의 고정적인 분화상이 아니라 다양한 생명 활동의 높은 층차에 위치한 氣로 본 것으로서, 다소 관념적인 차원에서 이 氣를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一元氣가 生生不息하여 끝없이 流行하는 것을 전제로 한 一元的 우주론의 관점에서 宗氣를 설명했는데, 마치 우주의 운행과 같이 밤낮으로 잠시도 그치지거나 끊어지지 않고 운행하는 宗氣의 성질을 중요시하였다. 그래서 營衛氣를 이해할 때에는 營衛氣가 呼吸의 수에 응하여 쉬지 않고 움직이도록 하는 宗氣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반드시 함께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57)</sup>.

그는 呼吸에 대해서도 관념적으로 인식하였다. 呼吸을 先天太極의 움직임이라고 보아 기본적으로 原氣, 즉 腎間動氣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다고 하였는데<sup>58)</sup>, 이러한 先天 차원의 原氣와 後天穀氣인 宗氣의 역할을 비교하고 구별하였다. 태아가 출생하자마자 바로 호흡하는 것을 볼 때 穀氣가 呼吸의 필수 요소라고 볼 수는 없지만, 原氣가 宗氣를 축적시켜 기르지 않으면 점차 고갈되어 呼吸을 행할 수 없게 된다고 하여 原氣에 의해 宗氣가 滋養되는 관계임을 설명하였다. 또, 宗氣는 주로 穀氣로서 胃中の 水穀이 다할 때까지 지속되나 原氣는 호흡의 발생 자체와 직결되어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다고 하였다<sup>59)</sup>.

56) 韓學傑, 張印生 主編. 孫一奎醫學全書(醫旨緒餘).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661-662. “宗氣者, 爲言氣之宗主也. 此氣搏於胸中, 混混沌沌, 人莫得而見其端倪, 此其體也.”

57) 韓學傑, 張印生 主編. 孫一奎醫學全書(醫旨緒餘).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62. “人與天地, 生生不息者, 皆一氣之流行爾. 是氣也, 具於身中, 名曰宗氣, 又曰大氣. 經營晝夜, 無少間斷, 靈素載之, 而後人莫之言之也. 後人只知道有營衛, 而不知營衛無宗氣, 曷能獨循於經隧, 行呼吸以應息數, 而溫分肉哉. 此宗氣者, 當與營衛並稱, 以見三焦上中下皆此氣而爲之統宗也.”

58) 韓學傑, 張印生 主編. 孫一奎醫學全書(醫旨緒餘).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60. “呼吸者, 即先天太極之動靜, 人一身之原氣也(即腎間動氣).”

59) 韓學傑, 張印生 主編. 孫一奎醫學全書(醫旨緒餘).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60. “此指後天穀氣而言, 謂呼吸資宗氣以行, 謂呼吸屬宗氣也. 何者. 人一離母腹時, 便有此呼吸, 不待於穀氣而後有也. 雖然, 原氣使無宗氣積而養之, 則日餒而瘁, 呼吸何賴以行. 故平人絕穀, 七日而死者, 以水

진체적으로 호흡에서의 역할을 비교할 때 宗氣에 비해 原氣를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인식한 것이다.

孫一奎의 宗氣에 대한 설명은 一元論의 우주관을 바탕으로 전개되었으며, 宗氣가 의미하는 인체에서의 생명 현상의 실체에 대해서는 상세히 논구하지 않아 다소 관념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반면, 우주적 순환과의 관련성 아래에서 설정된 『內經』의 營衛氣의 의미를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宗氣를 이해하고자 한 것은 宗氣를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 2) 喻嘉言의 大氣說의 宗氣

喻嘉言은 『醫門法律』에서 大氣 개념을 자신의 病機 학설의 중요한 부분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우주를 채우고 땅을 감싸 들어 올려 우주의 운행을 주관하는 『素問·五常政大論』의 大氣 언급에 착안하여, 인체에도 쉬지 않고 순환하는 생명현상의 원동력으로서의 大氣가 존재한다고 보았다<sup>60)</sup>. 따라서 大氣를 인체의 모든 氣를 主持하는 커다란 개념으로 파악하였는데, 營衛, 臟腑, 經絡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된 인체의 氣를 통솔하여 온 몸을 채우고 쉬지 않고 돌아가도록 하고 모든 부분이 명민하게 협응하도록 하는 작용이 모두 ‘胸中大氣’에 의지한다고 하였다<sup>61)</sup>. 특히 『金匱要略』에서 “大氣一轉, 其氣乃散”이라고 한 것에 착안하여 병증 회복 과정에 대한 설명에서 大氣 개념을 활용하고자 하였다<sup>62)</sup>. 인체 생명의 통합적 질서의 회복을 설명할 수 있는 氣의 실체를 필요로 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는 宗氣를 분화된 氣로서 大氣의 하위에 있는

穀俱盡, 臟腑無所充養受氣也. 然必待七日乃死, 未若呼吸絕而即死之速也. 以是知呼吸者, 根於原氣, 不可須臾離也.”

60) 喻昌 著. 醫門法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 pp.7-8. “大氣之說, 內經嘗一言之, …… 可見太虛寥廓而其氣充周磅礴因礴, 足以包舉地之積形而四虛無着, …… 人身亦然. 五臟六腑, 大經小絡, 晝夜循環不息, 必賴胸中大氣, 斡旋其間.”

61) 喻昌 著. 醫門法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 p.7. “其所以統攝營衛臟腑經絡, 而令充周無間, 環流不息, 通體節節皆靈者, 全賴胸中大氣, 爲之主持.”

62) 喻昌 著. 醫門法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 p.8. “金匱亦嘗一言之曰, 營衛相得, 其氣乃行, 大氣一轉, 其氣乃散. 見營衛兩不和諧, 氣即痹而難通. 必先令營衛相得, 其氣并行不悖, 後乃俟胸中大氣一轉, 其久病駁劣之氣始散.”

개념으로 보아, 大氣와 宗氣를 동일하게 보는 관점을 비판하였다. “膻中之宗氣”라고 하여 宗氣는 膻중에 머문다고 하였는데, 膻中은 ‘臣使之官’으로서 하나의 직위에 국한되며, 宗氣도 營衛氣와 같이 분화된 차원의 氣이므로 모든 氣를 主持하는 大氣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sup>63)</sup>.

그러나 病證이나 처방에 대한 실제적인 설명에서는 大氣와 宗氣의 역할을 크게 구분하지 않았고, 오히려 宗氣를 많이 언급하였다. 실제로 두 氣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sup>64)</sup>, 주된 이유는 大氣를 보다 구체적 개념인 宗氣와 구별하여 관념적인 성격을 강화시킨 반면 실질성을 잃어 大氣만으로는 병증을 설명하기에 부족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는 宗氣와 脈의 관계에 있어서 宗氣가 脈의 항상성의 발현과 관련이 있다는 견해를 제출하였다. 그는 脈이 사람의 항상성을 주관하는 것으로 보았는데<sup>65)</sup>, 宗氣가 虛하면 左乳下에 항상성을 잃은 脈이 나타난다고 보았다<sup>66)</sup>.

### 3) 張錫純의 大氣說의 宗氣

張錫純은 大氣를 宗氣와 같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임상 초기에 이 氣의 실체를 알지 못하였으나 스스로의 관찰을 통해 肺氣 이외에 胸中에 저장되어 呼吸을 주관하며 전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종의 氣의 실체를 발견하였다. 그 명칭을 알지 못하다가 喻昌의 저서를 읽으면서 大氣라고 명명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으며, 『內經』의 宗氣가 胸中の 大氣

임을 알게 되었다<sup>67)</sup>.

그는 이 氣가 호흡, 전신의 유지, 精神, 생각, 동작 등이 모두 여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氣가 虛하여 下陷될 경우 이러한 작용이 감퇴한다고 하였다<sup>68)</sup>. 또한 宗氣가 心脈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脈行에도 영향을 미쳐 腦血管의 운행의 중추가 된다고 하여<sup>69)</sup>, 腦의 문제도 상당 부분 大氣下陷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그는 많은 종류의 질병이 大氣下陷에 관련된 것으로 보고, 黃芪를 군약으로 하는 升陷湯을 지어 치료하였다.

그는 飲食을 통해 宗氣가 생성된다는 『內經』의 설명이 불완전하다고 보았는데, 元氣가 근본이 되고 水穀之氣가 재료가 된다고 하였다<sup>70)</sup>. 胎中の 胎兒를 예를 들며, 처음에는 先天之氣인 臍下의 元氣로 臍呼吸을 하다가 이것이 점차 쌓여 胸中까지 도달하여 大氣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大氣의 本源이라고 하였다. 한편으로는 吸入한 공기의 일부가 大氣를 자양한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張錫純의 大氣 및 宗氣에 대한 인식은 스스로의 경험에 의거하였기에 현실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임상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얻게 된 많은 병증에 대한 경험 역시 여러 가지 생각의 단초를 제공해줄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그 개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그가 말하는 大氣, 宗氣의 의미는 사실상 한의학에서 말하는 精氣神 중

63) 喻昌 著. 醫門法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 p.8. “膻中既爲臣使之官, 有其職位矣, 是未可言大氣也. 或謂大氣即宗氣之別名, 宗者尊也主也, 十二經脈, 奉之爲尊主也. 詎知宗氣與營氣、衛氣, 分爲三陰, 既有隱之可言, 即同六入地中之氣, 而非空洞無着之比矣.”

64) 喻昌 著. 醫門法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 p.317. “昌不端愚陋, 已着大氣論于卷首, 發明胸中大氣宗氣所關之重”

65) 喻昌 著. 醫門法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 p.11. “喻昌曰, 脈者, 開天闢地, 生人之總司有常, 而不間斷者也.”

66) 喻昌 著. 醫門法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 p.317. “故氣虛者, 言無常也. 此一語明謂上氣之虛, 由胸中宗氣之虛, 故其動之應手者無常耳. 乃知無常之脈, 指左乳下之動脈爲言. 有常則宗氣不虛, 無常則宗氣大虛, 而上焦之氣始恆恆不足也.”

67) 張錫純 著. 醫學衷中參書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2. p.106. “所以愚初習醫時, 亦未知有此氣. 迨臨證細心體驗, 始確知于肺氣呼吸之外, 別有氣貯于胸中, 以司肺臟之呼吸. …… 愚既實驗得胸中有此積氣與全身有至切之關繫, 而尚不知此氣當名爲何氣. 涉獵方書, 亦無從考證. …… 後又見喻昌言醫門法律, 謂五臟六腑, 大經小絡, 晝夜循環不息, 必賴胸中大氣. 斡旋其間, 始知胸中所積之氣, 當名爲大氣. …… 且知《內經》之所謂宗氣, 亦即胸中之大氣.”

68) 張錫純 著. 醫學衷中參書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2. p.106. “而此氣, 且能撐持全身, 振作精神, 以及心思腦力、官骸動作, 莫不賴乎此氣. 此氣一虛, 呼吸即覺不利, 而且肢體酸懶, 精神昏憤, 腦力心思, 爲之頓減.”

69) 張錫純 著. 醫學衷中參書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2. p.395. “內經之論宗氣也, 謂宗氣積于胸中, 以貫心脈, 而行呼吸, 由此知胸中宗氣, 不但爲呼吸之中樞, 而由心輸腦之血脈亦以之爲中樞.”

70) 張錫純 著. 醫學衷中參書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2. p.106. “是大氣者, 原以元氣爲根本, 以水谷之氣爲養料”

氣를 넘어 精神 개념의 일부까지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가 大氣의 생성 과정을 水穀之氣를 넘어 元氣 및 天氣와 관련지으려고 한 것이나, 서양의학에서의 精神의 실체인 腦의 기능과의 관련성을 설명한 것도 개념의 확장과 관련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 III. 考察

#### 1. 기존 宗氣 설명에 대한 검토 및 비판

##### 1) 한의학 이론서의 宗氣 설명 비판

앞서 살펴본 현대 이론서의 宗氣 설명을 검토해 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서술 기조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宗氣를 기능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이미 알려진 몇 가지의 생리 기능으로 환원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는데, ‘功能’, ‘기능화’, ‘활성화’ 등의 술어를 통해 단적으로 이러한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목적, 주제, 현상이 하나로 어우러져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보거나, 또는 굳이 구분하려 하지 않는 氣 특유의 관점에서 이탈하여, 하나의 시스템적인 구조를 상징하는 ‘기능’의 관점을 도입하여 이론적 정합성을 획득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宗氣를 ‘영양물질’로 정의한 것도 논의의 대상을 물질 차원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기존 한의학 이론 체계의 유관 개념들과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宗氣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첫째 사항과도 관련이 있는데, 환원적 이해란 곧 既知의 이론 체계로의 환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히 기존 이론과의 관련성의 강화를 통해 대상을 설명하게 된다. 五臟 중 心肺의 특성을 통한 宗氣 기능의 설명이나 下氣海와의 관련성 설명, 營衛氣와의 관련성 설명 등은 이러한 기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한국의 서적들에는 宗氣와 그 유관 개념들의 관계를 계통적으로 조직화한 도식이 함께 실려 있어 이러한 경향성이 더 두드러진다<sup>71)</sup>.

셋째, 宗氣의 설명에 현대 서양의학의 내용이 도

입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역시 첫째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宗氣를 水穀之氣와 ‘自然界的 清氣’, ‘공중의 大氣’가 결합한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심지어 기체 분자인 ‘산소’를 말한 경우도 있는데 서양의학에서 설명한 기체 교환 과정으로서의 호흡의 기전을 염두에 둔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설명 기조는 宗氣의 개념을 한의학 이론 체계 내에 수용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론적 충돌을 최소화하고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에 유용하지만, 宗氣 고유의 의미를 드러내는 데에는 미진한 면이 있다. 宗氣의 기능을 臟腑 이론, 經脈 이론 등의 일반적인 한의학 이론 체계로 환원시킴으로써 정작 宗氣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된 宗氣는 결국 기존 이론 체계를 통해 대체 가능한 대상이 됨으로써, 애초에 그러한 개념을 정초해야만 했던 문제의식이 희석되고 그것이 지시하는 생명 요소와 같은 독자적 의미 영역이 누락되는 것이다.

宗氣는 氣의 관점으로 인체를 관찰한 의학자들에 의하여 정초된 개념으로, 해당 생명 현상을 포착하고 기술하여 하나의 개념을 형성하게 된 문제의식과 목적성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기능 중심의 설명은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평면적으로 나열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서양과학에서 유래한 관념이 혼재하게 되면서 본래의 의미를 파악하기에 더욱 어렵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언급하자면, 宗氣와 같이 『內經』으로부터 비롯된 한의학 개념은 『內經』과 후대 注家 및 임상 醫家들의 문헌 기술을 기반으로 정립된 것이므로 세밀한 문헌 비평 및 해석을 요한다. 기존 이론 서적들의 설명도 많은 부분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세밀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내포된 의미를 짚어내지 못하거나, 다양한 醫家들의 견해를 종합, 비평하지 않고 한 醫家의 해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문헌적 방법론을 충실히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서술된 宗氣의 개념

71) 이는 한의학 개념의 실체를 인체라는 구조적 실체에서 나타나는 기능의 계통으로 이해하고자 한 ‘유기능체계’라는 일련의 연구 기조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것은 宗氣의 개념이 처음 제출된 초기 문헌의 검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宗氣 개념이 설정된 본연의 문제의식과 宗氣만이 담지하고 있는 의미를 읽어내야 한다. 또한 한의학의 발전 과정에서 宗氣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기하고 임상에 활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의학사적 맥락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2) 후대의 宗氣 설명 비판

宗氣에 대한 역대 醫家들의 전문적인 논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孫一奎와 喻嘉言, 張錫純의 宗氣에 대한 설명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宗氣에 대한 학설은 각기 宗氣의 서로 다른 일면을 드러내며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宗氣를 상당히 높은 차원의 氣로 인식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孫一奎의 宗氣에 대한 설명은 宗氣를 先天 原氣, 즉 腎間動氣의 관계를 강조한 것이 주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宗’이라는 이름의 의미로 볼 때 宗氣는 가장 높은 차원의 氣라고 인식되며, 그 기능 면에서도 호흡과 맥동이라는 핵심적인 생명 현상을 주관하는 것으로 볼 때 先天 元氣와의 관련성이 제기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孫一奎 이외에도 후대의 많은 醫家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宗氣를 先天之氣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앞서 다른 張錫純을 비롯하여 章楠<sup>72)</sup>, 吳謙<sup>73)</sup>, 高學山<sup>74)</sup> 등도 宗氣를 先天元氣와 後天穀氣의 결합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성과 별개로 宗氣는 水穀之氣

로부터 생성되는 것으로 後天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애초에 先天 元氣를 논하는 것과 목적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孫一奎의 宗氣 설명이 관념적인 성격을 띠면서 宗氣의 고유의 성격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宗氣가 先天 元氣의 하위에 있다고 보는 구조적 틀에 갇혀 우려도 있다.

喻嘉言과 張錫純의 大氣說은 공통적으로 『金匱要略』의 “大氣一轉”에 착안하여 병리적인 방면에서 大氣 개념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전신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임상 병증의 기전을 ‘大氣’라는 통합적 성격의 氣 개념을 통해 직관적이면서도 명쾌하게 설명하고자 한 것이 주된 의도인 것으로 생각된다. 宗氣와 유사하지만 보다 포괄적인 ‘大氣’를 중심으로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宗氣 개념에 대한 세밀한 이해를 우선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후대 醫家들의 宗氣 설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宗氣를 보다 근본적이거나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하여 여러 생명 현상을 보편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려는 경향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 아래에서 宗氣의 의미를 큰 틀에서 바라볼 수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宗氣의 구체적이고 고유한 특징에 대한 소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 2. 宗氣의 특징

### 1) 호흡과 맥동

宗氣가 호흡을 주관한다는 것은 『內經』 설명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었으며, 虛里가 肺에 絡하는 점, 宗氣가 口에서 衄새가 된다고 한 점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宗氣는 呼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呼吸을 주관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

脈의 박동을 주관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左乳下의 ‘其動應衣’를 언급하고 脈宗氣를 지칭한 것을 비롯해, 心脈을 관통하는 것, 대표적인 動脈處인 氣街로 下注함을 언급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호흡과 맥동은 모두 일정한 형식이 반복되는 순환 운동이라는 점이 공통적인데, 『內經』에서는 순환 운동으로서의 호흡과 맥동의 관련성을 여러 차례 언

72) 章楠 편주. 靈素節注類編. 杭州.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69. “宗氣者, 先天元陽之氣, 與穀氣相合也.”

73) 吳謙 등編. 醫宗金鑑. 서울. 법민문화사. 2006. p.404. “元氣者, 太虛之氣也, 人得之則藏乎腎, 爲先天之氣, …… 生化于脾, 爲後天之氣, 即所謂水谷入胃, …… 若夫合先後而言, 即大氣之積于胸中, 司呼吸, 通內外, 周流一身, 頃刻無間之宗氣者是也.”

74) 高學山. 高注金匱要略. 諸子百家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9 1 August]; Available from: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716966> “蓋腎中先天之氣, 從貼脊之後道, 上熏膈中, 與飲食所生之悍氣, 從肺而上貯胸中者相會, 則先天後天混合, 而成在上之宗氣.”

급하였다. 『靈樞動脈』에서는 脈行이 呼吸을 바탕으로 往來하게 된다고 하여<sup>75)</sup> 呼吸이 맥동의 근원이 됨을 설명하였고, 호흡수와 맥동 사이에 일정한 비율이 존재함도 언급하였다. 『素問平人氣象論』에서도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비율에서 벗어날 경우 병이 됨을 설명하였다<sup>76)</sup>. 『靈樞五十營』에서는 脈氣의 운행도 호흡 및 맥동과 일정한 비율로 연동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sup>77)</sup>.

이러한 언급들을 통해, 호흡과 맥동이 각각 독립적인 성격의 현상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실체인 것처럼 일정한 규율로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는 생각은 이미 『內經』에서부터 전체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內經』에서 宗氣가 호흡과 맥동을 주관한다고 본 두 개의 명제를 別件으로 분리하여 이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宗氣를 호흡과 맥동이 연동되는 규율성을 유지하는 주체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2) 留積의 과정

宗氣의 작용 과정에 대해 『內經』의 여러 편에서 ‘積’, ‘留’하였다가 ‘出’하거나 ‘注’한다고 하여 累積의 과정을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大氣가 ‘搏而不行’하는 과정을 거쳐 ‘머문다’고 하기도 하였다<sup>78)</sup>. 일반적으로 인체에서 氣가 쌓이거나 운행하지 않고 머물게 될 경우 병리적 경과로 본다는 점에서 이러한 설명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sup>79)</sup>. 또, 宗

氣가 머무는 장소로 ‘海(氣海)’를 언급한 점도 이와 맞물려 이해해볼 수 있다. 이것의 의미를 대략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안정성의 측면이다. 호흡과 맥동은 생명의 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서 활력징후(vital sign)에 속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생명 유지의 필수 요소들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들을 주관하는 宗氣의 활동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宗氣가 충분히 축적되어 모이는 과정이 선행됨으로써 이러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로 새로운 순환을 시작하는 추동력의 획득과 관련된 것이다. 앞서 호흡과 박동이 모두 순환성을 지닌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하나의 순환이 새로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임계점 이상의 출력이 필요하며 임계점에 도달하기까지의 축적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脈氣의 순행과도 유사한데 『靈樞動脈』에서는 脈氣가 추동되는 세력을 弓弩가 발사되는 것이나 물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폭발적인 기세에 비유하였다<sup>80)</sup>. 또한 五輸穴의 流注를 물이 샘솟았다가 머무른 후 비로소 흘러가는 과정<sup>81)</sup>으로 설명한 것도 유사한 사고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로 宗氣의 작용이 정상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滋養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宗氣가 비록 水穀에 의해 생성된다고 하였으나 일시적인 水穀의 納入이 宗氣 형성의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水穀의 納入과 腐熟, 傳送의 순조로운 흐름이 어느 정도 지속되어야 宗氣가 충분히 형성되어 정상적으로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7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67. “其行也, 以息往來, 故人一呼, 脈再動, 一吸, 脈亦再動, 呼吸不已, 故動而不止.”

7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57. “人一呼脈再動, 一吸脈亦再動, 呼吸定息脈五動, 閏以太息, 命曰平人. …… 人一呼脈一動, 一吸脈一動, 曰少氣. 人一呼脈三動, 一吸脈三動而躁, …… 人一呼脈四動以上曰死, 脈絕不至曰死, 乍疎乍數曰死.”

7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11. “人一呼, 脈再動, 氣行三寸, 一吸, 脈亦再動, 氣行三寸, 呼吸定息, 氣行六寸, ……”

78) 『靈樞邪客』에서 “宗氣積於胸中”, 『靈樞刺節眞邪』에서 “宗氣留於海”, 『靈樞五味』에서 “其大氣之搏而不行者, 積於胸中”라고 하였다.

79) 『靈樞衛氣失常』에서 “衛氣之留於腹中, 稽積不行, 苑蘊不得常所, 使人肢脇胃中滿, 喘呼逆息者, 何以去之. 伯高曰, 其氣積於胸中者, 上取之. 積於腹中者, 下取之.”라 하여 衛

氣의 축적이 병증으로 발현되는 것을 설명하였으며, 이외에도 ‘積’, ‘留’는 주로 병리적 상황을 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55.)

8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67. “氣之離藏也, 卒然如弓弩之發, 如水之下岸, 上於魚以反衰, 其餘氣衰散以逆上, 故其行微.”

81) 백유상. 經絡의 循環과 精氣 生成의 관계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7(4). 2004. “榮이란 물이 한 곳이 자리를 잡고서 불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샘물이 地上으로 나오면 우선 한 곳에 모여서 웅덩이를 만들다가 그것이 불어서 넘치면 물줄기를 이루어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 3) 宗氣의 發源地인 胸中

『內經』에서는 宗氣가 쌓이고 머무는 장소로 胸中을 말하고 있다. 우선 宗氣가 胸中에 쌓이게 되는 과정을 보면, 中焦 胃에 들어온 水穀之氣로부터 출발하여 上焦로 올라오게 된다. 『內經』의 여러 편에서는 공통적으로 中焦 胃의 水穀에서 나온 氣가 우선 上焦 肺로 운행한다고 설명하는데, 그 요점은 胃에서 받아들인 水穀之氣 중의 淸氣를 肺로 제출하여 肺에서 전신으로 氣를 보내는 것에 있다<sup>82)</sup>. 宗氣의 흐름도 일치하는데, 宗氣도 水穀에서 나온 氣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水穀之氣의 흐름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sup>83)</sup>.

그리하여 宗氣는 다른 곳이 아닌 胸中에 머무른다고 하였는데, 胸中은 인체의 상부이자 陽의 부위에 해당하여 精氣가 갈무리되는 하부와 달리 氣를 외부, 經脈으로 宣發하기에 유리한 곳이다. 인체의 氣가 외부로 퍼져 經脈 운동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데, 이에 宗氣가 이곳에 머물러 氣를 推動하여 외부로 宣發하는 것을 주관하는 것이다.

注家들은 三焦 이론을 통해 宗氣를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上焦에서 宗氣가 出하는 것으로 보았다. 대표적으로 張介賓은 “上焦如霧”에 대해 胸中의 宗氣가 呼吸을 주관하여 氣를 經隧를 통해 퍼뜨리는 것이라고 하여 上焦의 의미를 宗氣와 관련지어 설명하였는데<sup>84)</sup>, 앞의 설명과 의미가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 4) 氣街로의 하행

宗氣가 氣街로 하행하는 것은 상부의 脈動이 전파되어 氣街의 搏動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氣街의 의미를 살펴보면 足陽明胃經의 脈氣가 나타나는 곳이며 陽明과 衝脈이 만나는 곳으로서<sup>85)</sup> 胃에서 생성되는 氣와 下焦에 갈무리된

精氣가 만난다고 보기도 한다<sup>86)</sup>. 이러한 氣街의 특성을 고려할 때 精, 혹은 元氣와의 관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宗氣가 ‘宗’이라는 의미로 명명된 것이나, 그것이 주관하는 작용이 생명의 유지에 필수적인 긴요한 생명 현상임을 감안할 때 분명 宗氣의 작용에는 先天 元氣와의 유관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일부 注家들도 이와 같이 생각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太素』에서는 胸中 宗氣를 아예 原氣인 腎間動氣와 동일시하기도 하였으며, 張介賓은 宗氣가 우선 下氣海인 丹田에 축적되었다가 氣街를 통해 발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았다<sup>87)</sup>. 宗氣를 腎間動氣로 본 것이나 丹田을 말한 것은 道家 수련에서 蓄氣를 통해 선천을 기르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先天 元氣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氣街는 陽明에 속해 있어 중앙에 위치한 丹田과는 엄연히 위치가 다르므로 그 含意 또한 구분된다. 따라서 宗氣가 氣街로 하행하는 것의 의미는 道家의 수련 과정보다는, 後天 陽明胃를 중심으로 先天과 결합하여 전신의 經脈 운동을 推動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先天과의 관련성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 5) 營衛氣와의 관계

宗氣는 『內經』, 『傷寒論平脈法』의 여러 문장에서 營衛氣와 함께 설명되어 매우 깊은 관련성을 보여주며<sup>88)</sup>, 宗氣의 병리적 상태를 언급한 일부 내용<sup>89)</sup>에서는 氣血의 흐름이 정제되는 문제를 말한 것으로

82) 『素問經脈別論』, 『靈樞動脈』, 『靈樞營衛生會』, 『靈樞口問』 등 다수의 편에서 肺胃의 관계를 설명했다.

83) 宗氣가 나타나는 胃之大絡인 虛里가 “貫兩絡肺”하는 것도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

84) 張介賓 저, 전국한의과대학원전학교실 편, 현토주역 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17. p.360. “如霧者, 氣浮於上也, 言宗氣積於胸中, 司呼吸而布瀉於經隧之間, 如天之霧, 故曰上焦如霧也.”

8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66. “衝脈者, 經脈之海也, 主滲灌諸谷, 與陽明合於宗筋. 陰陽總宗筋之會, 會於氣街, 而陽明爲之長, 皆屬於帶脈, 而絡於督脈.”

86) 백유상, 김종현. 『素問·效論』의 ‘聚於胃, 關於肺’條문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7. 30(3). p.174.

87) 張介賓 저, 전국한의과대학원전학교실 편, 현토주역 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17. p.860. “其下者, 蓄於丹田, 注足陽明之氣街, 而下行於足”

88) 『靈樞邪客』에서는 宗氣, 營氣, 衛氣의 생성 과정을 말했고, 『靈樞刺節眞邪』에서는 用鍼시에 營衛氣를 조절하는 문제를 말하면서 宗氣를 설명했다. 『靈樞五味』에서는 營衛의 운행을 설명하면서 大氣를 설명하였다.

89) 앞서 “宗氣不下”나 “宗氣歸之”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볼 때 營衛氣의 운행에 관여하는 면이 나타난다.

기존 醫家들의 설명은 주로 宗氣가 營衛氣의 운행에 관여하는 방식을 주제로 논의했는데, 이 문제를 통해 宗氣가 활동하는 양상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체로 宗氣가 脈內를 따라 營氣의 운행을 주도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으나, 衛氣의 운행에 대한 견해에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 馬蒔는 衛氣가 標悍하여 宗氣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행한다고 하였고<sup>90)</sup>, 喻嘉言도 같은 견해를 표명하였다<sup>91)</sup>. 반면, 張志聰은 宗氣가 營衛氣를 각각 따라 經脈 內外로 모두 운행한다고 하였다<sup>92)</sup>. 명확히 말하지 않거나 절충적인 견해를 표명한 경우도 있는데, 張介賓은 營氣에 대해서는 명확한 견해를 표명했으나 衛氣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營衛氣가 모두 宗氣에 의해 氣化된다는 것을 지적하였고<sup>93)</sup>, 周學海는 衛氣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나 宗氣가 쇠하면 역시 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다<sup>94)</sup>.

그러나 이러한 기능적인 측면보다도 거시적인 순환에 있어서의 營衛氣의 특성에 주목하여 宗氣와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內經』의 營衛氣의 순행에 대한 설명에서는 하루 동안의 시간 변화에 따른 氣의 순환<sup>95)</sup>이 매우 중시되며, 이는 결국 우주

의 순행과 인체의 순환의 관련성을 인식한 것이다<sup>96)</sup>. 한편, 앞에서 지적하였듯 宗氣는 呼吸과 搏動에 관련하여 일정한 氣의 순환성을 주관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규칙적인 呼吸과 搏動의 반복은 궁극적으로 하루의 순환을 구성하게 된다<sup>97)</sup>. 따라서 營衛氣 순환 질서의 유지는 宗氣의 정상적인 작용에 의한 순환성의 발현에 의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자연히 宗氣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營衛氣의 순환 역시 질서를 잃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孫一奎가 ‘宗氣를 빼놓고 營衛氣의 氣의 순환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본 것도 이와 같은 면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宗氣의 의미

#### 1) 생명 활동의 항상성 유지

宗氣는 呼吸과 脈動의 氣의 순환성을 주관하여 생명 활동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다. 氣의 순환성이란 끊임없이 나타나는 반복 순환 운동을 전제로 도출되는 것이며, 반대로 氣의 순환성은 현실세계에서 순환 운동의 양상으로 표현된다고 말할 수 있다. 『內經』에서는 呼吸과 脈動의 일정한 氣의 순환성을 인식하였는데, 이는 呼吸과 脈動의 순환성을 인식한 것이기도 하다.

呼吸과 脈動은 현대적으로는 생명력을 나타내는 활력징후(vital sign)이며, 한의학으로 말하면 ‘決死生’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생명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순환 운동이다. 또, 呼吸과 脈動을 생명의 순환성의 미시적인 발현 양상이라고 본다면, 營衛氣의 순환은 보다 거시적인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미시적인 순환의 반복이 거시적인 순환을 구성하여 전체적으로는 우주의 변화에 응하는 天人相應의 관점이 『內經』의 營衛論에 나타난다.

營衛氣는 일정한 경로를 갖지 않지만 晝夜에 걸쳐 陰陽으로 역시 일정한 氣의 순환을 지니고 있다.

96) 백유상. 營衛陰陽論의 변천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4(1). 2011. p.36. “즉 『內經』의 營氣, 衛氣 개념은 氣血이 天人相應의인 氣의 순환에 의하여 순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몸을 자양하게 된다는 인체 생명관의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다.”

97) 이를 설명한 것이 『靈樞五十營』이다.

90) 馬元臺, 張隱庵 譯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1981. p.23. “營氣者, 即陰氣也, …… 隨宗氣以運行於經脈之中, …… 陽氣者, 衛氣也, 衛氣不隨宗氣而行, 而自行於各經皮膚分肉之間, ……”

91) 喻昌 著. 醫門法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 p.16. “衛氣標悍, 不隨上焦之宗氣同行經隧, 而自行各經皮膚分肉之間. 營氣根于中焦, 陽中之陰, 行至上焦, 隨上焦之宗氣, ……”

92) 김단호 편역, 김중환 감수. 注解補注黃帝內經靈樞. 서울. 의성당. 2002. p.1209. “宗氣行於經脈之外內, 行於脈內者, 偕營氣而行, 行於脈外者, 隨衛氣而轉外內, 自相逆順而行者也.”

93) 張介賓 著. 欽定四庫全書醫部全錄卷之六 經絡. 서울. 법민문화사. 2017. p.358. “營氣者, 隨宗氣以行於十四經脈之中, “宗氣出於喉嚨而行呼吸, 其以溫分肉, 養骨節, 通腠理者, 是衛氣化於宗氣也. …… 中焦出氣如霧, 營氣也. 其於陰陽已張, 因息乃行, 是榮氣化於宗氣也.”

94) 周學海 著. 岐黃類書. 評註 讀醫隨筆. 서울. 집문당. 2014. p.441. “榮氣不能自動, 必借宗氣之力以運之. 衛氣雖自有動力, 而宗氣若衰, 熱亦內陷.”

95) 營氣의 흐름은 十二經脈의 경로와 순서를 따라 돌아가며

『內經』에서는 이러한 인체관에 기초해, 생명이 呼吸과 脈動의 순환성을 기초로 살아 세워지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나아가 거시적 흐름으로 나타나는 생명 현상도 실상은 이러한 기초적인 규율성의 바탕 위에서 성립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宗氣가 呼吸과 脈動을 주관하면서도 營衛氣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명의 기초적인 순환 운동을 推動하여 전체 생명의 규율성을 주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宗氣는 항상 胸中에 留積되는 과정을 통해 작용함으로써 안정성을 부여하는데, 생명의 율동이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sup>98)</sup>.

## 2) 後天에 근본을 둔 생명 질서

宗氣는 後天 水穀之氣에 기반을 둔 생명 질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은 宗氣 생성의 측면과 작용의 측면으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다.

우선 後天 水穀之氣에 관련된 宗氣 생성의 측면을 살펴보면 『內經』에서 水穀은 胃에서 宗氣, 津液, 糟粕의 세 갈래[三陰]로 갈라진다고 언급되었는데, 이는 水穀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宗氣가 나오는 것임을 의미한다. 즉, 水穀이 정상적으로 胃로 納入되고 소화되어 糟粕이 내려가 배출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도 하나의 순환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순환이 순조롭게 지속될 때에 宗氣가 충실하게 생성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폭식과 단식하는 습관이 이어지거나, 腸胃에 積聚가 있는 경우 또는 五臟의 精氣가 쇠한 경우 등으로 정상적으로 소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宗氣가 정상적으로 化生되지 못하여 呼吸, 脈動 등의 항상성이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에는 宗氣가 충실히 작용하게 되어 외부의 변동에 의해 생명 율동이 흔들리더라도 비교

적 수월하게 항상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難經』에서 呼吸之間에 脾가 穀味를 받아들인다고 한 것이 呼吸과 水穀 소화 과정의 관련성을 내포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sup>99)</sup>. 喻嘉言도 呼吸의 의미를 脾胃가 水穀 소화 과정을 수행하는 것까지 포괄하여 인식하였는데, 黃門에서 肝門까지 水穀이 전송되는 것이 呼吸의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한 것으로, 이러한 宗氣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sup>100)</sup>.

後天 水穀之氣에 관련된 宗氣 작용의 측면은 先天 元氣와 비교를 통해 이야기해 볼 수 있다. 先天의 元氣를 생명이 타고난 본연의 질서를 내포하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後天의 水穀之氣는 經脈 운동의 주체가 되어 현실세계에서의 실질적인 삶을 영위토록 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宗氣는 胸中에 留積되어 呼吸과 脈動을 주관하여 經脈의 宣發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先天 元氣의 氣化나 滋養 보다는 水穀之氣가 이끌어나가는 後天의 현실세계에서의 생명력의 발현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후대 醫家들이 宗氣를 대체로 先天之氣와의 관련성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 것은 나름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만, 그 관련성을 과대하게 인식할 경우 宗氣의 의미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 오히려 先天之氣 차원에 관련된 呼吸의 의미와 後天 水穀에 관련된 呼吸의 의미를 변별하는 것이 宗氣의 이해에 있어 유용한 방법이라 생각되며, 宗氣의 고유한 의미는 後天 水穀을 바탕으로 생명을 영위하는데 중심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101)</sup>.

참고로 한의학에서 생명의 항상성 유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機轉으로 精의 先天의 질서 유지 작용, 膽의 中正, 決斷 작용, 三陰三陽 開闔樞 중 少陽樞의 작용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精은 정미로움을

98) 지규용도 宗氣를 호흡에 관련된 '律呂'를 주관한다고 보고 전신적인 律呂 작용의 근원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지규용. 새로운 한의학 터담기I. 부산. 교정의서국. 2008. pp.74-75. "호흡지기가 종기와 함께 인체가 규칙적으로 음양운동을 반복하며 ..... 결국 이러한 종기의 율려운동은 영위순환의 규율성을 만들고 따라서 다른 오장육부와 관귀 및 조직기관들도 음양, 동정의 리듬과 변화운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99) 滑壽. 難經本義. 台南. 世一書局. 1984. p.20. "呼出心與肺, 吸入腎與肝, 呼吸之間, 脾受穀氣也, 其脈在中."

100) 喻昌 著. 醫門法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 p.6. "故惟脾胃所主中焦, 爲呼吸之總持. 設氣積胃門不散, 而阻其出入, 則危急存亡非常之候. 善養生者, 俾黃門之氣, 傳入幽門, 幽門之氣, 傳二陰之竅而出, 乃不爲害."

101) 『說文解字』에서 "宗, 尊祖廟也."라고 하였는데, 先祖로부터 내려오는 뜻을 계승하여 현실 세계의 삶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宗'의 의미가 여기에서 설명한 宗氣의 의미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통해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元氣와 같은 것이다. 膽의 中正은 陰陽의 유동적 상황에서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동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해당하며, 사실상 少陽樞의 중재 조절 작용과 연결되어 있다<sup>102)</sup>. 後天 水穀에 바탕을 둔 宗氣의 항상성 유지 작용은 생명의 항상성 유지의 또다른 방식을 보여준다.

#### 4. 宗氣 개념 활용의 난점과 향후 연구 방향

宗氣 개념은 『內經』에서 질병 발생, 혹은 치료의 機轉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많이 활용되지 않았으며, 歷代 醫家들의 논설에서도 보편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喻嘉言이나 張錫純의 大氣說에서 일부 활용된 바 있으나, 앞서 지적하였듯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로 활용된 것으로 宗氣 고유의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니다.

宗氣 개념이 활용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의학에서 질병과 치료를 설명하는 기존의 辨證 체계에서 宗氣의 개념을 포괄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앞서 살펴보았듯 宗氣의 개념은 단순히 呼吸, 脈動의 기능 수행에 관련된 개념이라 할 수 없으며, 생명 운동의 규율성, 항상성의 유지에 관련된 개념으로서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한의학의 대표적인 辨證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五臟六腑, 三陰三陽, 八綱, 三焦, 營衛氣血 등의 이론의 틀을 적용해 인위적으로 宗氣 개념을 기능적인 요소들로 해체할 경우 본래 宗氣 개념이 지니고 있었던 고유의 역동적 특징은 사라지게 된다<sup>103)</sup>. 현대 한의학 이론서들의 宗氣 설명은 이러한 문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宗氣의 개념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임상적 관찰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아 임상적 실체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많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기존 한의학에서 呼吸과 脈動의 문제, 그리고 脾胃 水穀의 문제를 상호 간의 긴밀한 관련성

을 염두에 두어 일관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傷寒論』에서 炙甘草湯을 사용해 “心動悸, 脈結代”를 치료한 경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脈動의 문제에 대해 補脾胃하는 炙甘草를 사용해 치료한 경우로서 宗氣의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傷寒論』 조문으로부터 후대의 해설에 이르기까지 宗氣의 개념을 적용해 機轉을 설명하거나 증후를 확장 기술한 경우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宗氣 개념은 지금의 한의학이 간과하고 있는 생명현상의 영역을 새로이 인식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현대에는 水穀의 의미를 주로 인체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또는 인체 형성을 위한 물질적 기초 등 질량적 요소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宗氣 개념은 水穀의 대사가 생명 운동의 유지의 바탕이 됨을 보여줌으로써 인체에서의 水穀 대사의 의미를 보다 넓게 인식하게 해준다. 또, 현대의 營衛氣 개념도 인체의 방어와 滋養의 기능적 측면을 위주로 이해되는데, 營衛氣가 宗氣와의 관련성 하에서 인체의 거시적인 생명 운동을 나타낸다는 점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넓은 차원에서 펼쳐지는 생명현상의 연계를 관찰할 수 있는 시야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宗氣 고유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통해 관점을 확장하고 새로운 생명현상을 인식하게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임상에서의 활용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향후 宗氣 개념에 담겨있는 고유의 의미를 임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宗氣 개념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더불어 구체적인 임상적 실체에 대한 적극적인 탐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념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위해서는 기존의 宗氣 논의에서 나타난 기능 중심으로 분석하려는 환원적 관점이나 보편성을 전제로 한 一元論의 관점은 모두 지양해야 할 것이며, 宗氣 개념에 담겨있는 고유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련된 생명 현상들의 의미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임상적 실체에 대한 탐구는 宗氣와 가장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呼吸과 脈動의 항상성의 문제가 나타나는 질환<sup>104)</sup>을 중심으

102) 신상원, 『黃帝內經』의 少陽主骨의 의미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8. 31(1). pp.106-108.

103) 예를 들어 기침 환자를 진단할 때 宗氣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과 臟腑辨證을 통해 肺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04) 부정맥(驚悸, 怔忡, 脈結代 등), 천식 등의 질환이 이에

로 접근하여 현실에서 나타나는 생명 현상을 최대한 담아내려 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 IV. 結論

본 연구는 宗氣의 개념이 한의학에서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고유한 의미에 대한 설명도 흡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宗氣에 대한 기존 이론서 및 역대 醫家들의 설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이어서 『內經』에서 宗氣 개념 고유의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성격은 문헌 분석을 통해 宗氣의 개념을 새로이 제안하고 정립하고자 하는 기초 단계의 연구에 해당하여, 宗氣 개념이 의학적 개념임에도 임상 분야에 적용하는 국면으로는 나아가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의학사적으로 활용된 사례가 많지 않은 宗氣라는 주제의 특성상 개념적 설명과 임상적 경험의 양면에서 의미있는 연구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의 宗氣 개념에 대한 해석의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념적 수준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宗氣 개념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한 임상적 경험의 축적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기존 현대 이론서의 宗氣 설명은 기능의 관점에서 宗氣를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宗氣의 개념을 다른 한의학 개념에 의지하여 환원적으로 이해하는 등의 경향성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宗氣 개념에 담긴 문제의식과 고유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다.
2. 전문적으로 宗氣에 대해 논의한 역대 醫家들의 설명에서는 醫家마다 宗氣의 의미의 일면을 발휘한 측면이 있으나, 宗氣를 보다 보편적인 개념으로 확장하여 인식하려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宗氣의 의미를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

해당한다.

나 임상적인 구체성은 희석됨으로써 宗氣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충분히 소명되지는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宗氣의 의미는 呼吸과 脈動의 규율성을 주관하여 생명 윤통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宗氣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작용은 呼吸, 脈動과 같은 기초적인 순환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순환에 의해 구성되는 營衛氣의 순환과 같은 거시적 생명 현상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4. 한편, 宗氣의 생성과 작용은 모두 後天 水穀之氣에 기반을 둔 생명 질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宗氣의 생성은 水穀의 소화와 관련되어 있는데, 水穀의 소화 과정 자체도 하나의 생명 윤통으로서 순조롭게 지속되는 과정에서 宗氣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宗氣의 작용은 呼吸과 脈動을 주관하여 經脈의 운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宗氣는 水穀之氣가 이끌어가는 後天의 현실세계의 생명력 발현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5. 역대로 宗氣 개념이 활용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해보면, 첫째로 宗氣의 고유한 의미 영역을 한의학의 기존 이론 체계를 통해 적절하게 포괄하여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둘째로는 宗氣 개념에 부합하는 임상적 경험이 축적되지 않아 임상적 실체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많이 않은 것을 들 수 있다.
6. 향후 宗氣 개념에 담겨있는 고유의 의미를 임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宗氣 개념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더불어 구체적인 임상적 실체에 대한 적극적인 탐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References

1. 高學山. 高注金匱要略. 諸子百家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9 1 August]; Available from: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716966>
2. 高學山. 高注金匱要略. 諸子百家中國哲學書電

- 子化計劃 2006 [cited 2019 1 August]; Available from: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798129>
3. 김달호 편역, 김중환 감수. 注解補注黃帝內經靈樞. 서울. 의성당. 2002.
  4. 김완희 저. 신관 장부생리학. 서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1987.12) 김완희, 김광중 공저. 동의생리학총론. 대구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1984.
  5. 대한동의생리학회 편. 동의생리학.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3. p.87.
  6. 馬元臺, 張隱庵 譯註.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1981.
  7. 박선영, 김호현. 생리학. 서울. 집문당. 2019.
  8. 백유상, 김종현. 『素問·欬論』의 ‘聚於胃, 關於肺’條文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2017. 30(3).
  9. 백유상. 『黃帝內經太素』에 나타난 腎間動氣說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학회지. 2016. 29(3).
  10. 백유상. 經絡의 循環과 精氣 生成의 관계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17(4). 2004.
  11. 백유상. 營衛陰陽論의 변천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학회지. 24(1). 2011.
  12. 上海中醫學院. 中醫學基礎. 香港. 商務印書館. 1992.
  13. 孫廣仁 주편. 中醫基礎理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 p.43.
  14. 신상원. 『黃帝內經』의 少陽主骨의 의미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2018. 31(1).
  15. 楊燕. 宗氣理論概述及現代研究進展. 世界科學技術—中醫藥現代化. 2014. 16(11).
  16. 吳謙 등 編. 醫宗金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6.
  17. 王九龍. 宗氣理論的研究進程與思考.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07. 13(6).
  18. 王琦 주편. 中醫藏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19. 喻昌 著. 醫門法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
  20. 日本東洋醫學會 편집. 善本翻刻 傷寒論金匱要略. 東京. 日本東洋醫學會. 2009.
  21. 張介賓 著, 전국한의과대학원전학교실 편. 현토주역 類經. 서울. 법인문화사. 2017.
  22. 章楠 편주. 靈素節注類編. 杭州.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23. 張錫純 著. 醫學衷中參書錄. 石家莊.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2.
  24. 張仲景 原著, 成無己 注. 注解傷寒論. 北京. 學苑出版社.
  25.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수 편저. 개정판 동의생리학. 서울. 집문당. 2008.
  26. 錢超塵, 李雲 校正.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27. 周學海 著, 백상용 국역평주. 評註 讀醫隨筆. 서울. 집문당. 2014.
  28. 지규용. 새로운 한의학 터잡기I. 부산. 교정의서국. 2008.
  29. 차운근, 김경호, 윤종화. 元氣·宗氣·榮氣·衛氣에 對한 考察. 동국한의학회연구소논문집. 1994. 3.
  30. 河北中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135.
  31. 韓學傑, 張印生 主編. 孫一奎醫學全書(醫旨緒餘).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3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34. 滑壽. 難經本義. 台南. 世一書局. 1984.